

# 2024학년도 국어국문학과 정기학술조사 비판적 읽기와 창조적 사고를 위한 문화유산 탐방

- 지역어문학과 문화 원천 자료 탐색·조사 -

2024학년도 국어국문학과 정기학술조사는 지역어문학과 문화 원천 자료가 발굴, 보존된 현 장들을 직접 방문하고, 이를 국어국문학도의 관점에서 탐색, 조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번 정기학술조사에서 방문할 곳은 전북의 익산과 무주, 충북의 옥천과 청주이다. 방문할 기관은 문화유산을 다루는 박물관과 근대 시인 및 문학 비평가를 기리는 문학관으로 나뉘 볼 수 있다. 두 기관은 문화 원천 자료를 발굴하고 보존하며, 더 나아가 그것을 하나의 공간에 배치함으로써 다양한 의미와 가치를 만들어 내는 작업을 중점에 둔다.

학생들은 각 기관의 자료를 수동적으로 소비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해석하고, 전시된 자료의 숨겨진 가치와 가능성을 찾아내는 작업을 통해 비판적 읽기 능력을 기를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그동안 학부 과정에서 배운 전공 지식을 활용하여 문화 자원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하는 방향성을 모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초 연구 능력과 창조적 문화 자원 소비 능력을 함양하고, 국어국문학 전공의 심화와 확장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정기학술조사가 추구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이번 정기학술조사는 학생들이 문화 자원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창조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배양하는 중요한 경험이 될 것이며 국어국문학 전공의 능력을 확장하고, 향후 사회문화적 맥락과 연결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 1. 미륵사지 및 익산국립박물관, 왕궁리 유적 및 백제 왕궁 박물관

익산의 미륵사지와 왕궁리 유적은 출토 및 복원, 해체 조사 및 보수 정비, 고고학적 조사와 학술 연구 등을 통해 백제역사유적지구의 중요한 유산으로 다뤄지고 있다.

이때 미륵사의 경우, 『삼국유사』에서 전해지는 미륵사 설화가 사찰의 창건 연대 및 창건 과정에 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삼국유사』에 실린 두 편의 미륵사 설화의 구체적인 내용과 전승 방식을 확인하고, 백제 역사와의 관계성을 살피는 것을 통해 설화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이해해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륵사 관련 설화가 현재 미륵사지를 이해하는 데에 소비되는 방식 또는 재생산되는 방식을 살펴볼 수 있다. 한편 설화가 역사를 기술하는 데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문학으로서의 설화가 소외될 가능성을 인식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겠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본적으로 설화라는 이야기 장르를 폭넓게 탐색할 수 있으며, 미륵사 설화뿐만 아니라 백제의 건국, 공간, 인물, 유적 등에 관한 다양한 구비문학 자료를 수집, 분석, 비교, 정리함으로써 문학과 문화, 문학과 역사가 만나는 지점을 탐색해 볼 수 있다.

한편, 미륵사지와 익산국립박물관, 왕궁리 유적과 백제 왕궁 박물관을 직접 방문함으로써 해당 유적지구의 또 다른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미륵사지는 백제의 불교사찰이며, 왕궁리 유적은 왕궁에서 불교사찰로 변화했던 곳이다. 정치·문화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두 공간이 발굴, 복원, 연구되는 과정을 직접 바라봄으로써 백제의 문화, 중

교, 예술, 동아시아 교류사가 현대적으로 재구성되어 더 많은 의미와 가치를 갖게 됨을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상설 및 특별 전시관에 전시된 개별 유물들 마다의 서사를 발견하고, 이러한 유물들이 모여 만드는 박물관만의 스토리텔링 및 담론 그리고 다시 이들이 모여 만드는 백제의 서사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서도 접근해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크고 작은 서사들이 얽혀 익산의 지역성과 정체성이 생산되고 변화되는 과정 또한 이해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국립익산박물관, 『백제의 빛, 미륵사 석등』, 놀와, 2021.  
권인환 외, 『한국고대 문자자료 연구: 백제 상, 하』, 주류성, 2016.  
김희태, 『문화재로 만나는 백제의 흔적』, 휴앤스토리, 2019.  
이병호, 『백제 불교 사원의 성립과 전개』, 사회평론아카데미, 2014.  
이장웅, 『신화 속에 깃든 백제의 역사』, 학연문화사, 2017.  
정재윤, 『무령왕, 신화에서 역사로』, 푸른역사, 2021.

## 2. 청주 고인쇄 박물관

예로부터 충청북도는 인쇄·출판 문화에 있어서 우수한 수준을 보이는 지역이었다. 이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소장 또는 복원하여 전시하고 있는 다양한 고문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서는 『직지』와 함께 목판, 목활자, 금속활자 등의 방식으로 인쇄된 문헌들을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신라, 고려, 조선에 이르는 인쇄·출판의 역사를 알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서적의 제작 및 유통 방식과 범위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당대의 문화와 시대정신을 읽어낼 수도 있다.

한편 이러한 고문헌들은 책의 형태와 재료, 용도와 내용 그리고 그 변천사를 연구하는 서지학뿐만 아니라 국어사 연구에서도 귀중한 원천 자료가 된다. 우리는 고문헌을 통해 문자 체계 또는 어휘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다. 오늘날과 달리 과거에는 음성이나 영상 자료를 통해 언어를 기록할 수 없었다. 그렇기에 이러한 문헌들에 남아있는 문자 기록이 국어사 연구와 지역어 연구의 기초 자료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이 소장 또는 복원한 자료들의 판본 간 차이를 이해하고, 이때 확인할 수 있는 언어의 다양한 변화를 발견함으로써 국어의 역사를 다시금 되짚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고전문학 연구에서도 문헌 자료를 연구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고전문학 연구에서는 한문 문헌과 한글 문헌이 모두 활용된다. 특히 한글 문헌의 경우 고소설, 시조, 가사와 더불어 조선 후기의 사회상과 문화상을 연구할 수 있는 각종 기행문(유배기, 여행록 등)과 개인과 조상의 삶을 기록한 한글 행장류가 활용된다. 우리는 청주 고인쇄 박물관에 전시된 다양한 자료들에서도 이러한 고전문학 연구에 필요한 자료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등 고문헌에 접근할 수 있는 여러 시각을 얻을 것이다.

※참고문헌

박문열(2003), 「고려시대 충북의 인쇄출판문화정책에 관한 연구」, 『청대학술논집』 1, 청주대학교 학술연구소, 237-258.  
이기문(1998), 『(신정판) 국어사개설』, 태학사.

### 3. 가람 문학관, 김환태 문학, 정지용 문학관

문학관은 대체로 작가의 업적과 정신을 기리고 그 가치를 계승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작가가 남긴 유물들을 수집, 보존하고 조사, 연구하며 위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세부 공간을 마련하고 자료들을 전시하며 다양한 문화 행사와 교육 행사를 기획하고 실천한다.

시조 시인이자 국문학자인 가람 이병기, 문학비평가 김환태, 시인 정지용은 전라북도 출신이며 근대 시기에 활동했던 중요한 문학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을 한데 묶어 근대 문학의 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겠고, 개별적으로 다룸으로써 근대 시기 국문학 연구와 서지 작업, 산문과 운문 영역에서 이뤄졌던 의미 있는 움직임을 살펴볼 수도 있겠다.

한편 도서관 또는 인터넷 자료를 통해 이해한 내용과 문학관을 방문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내용은 다를 수 있다. 문학관은 작가의 원본 및 육필 원고, 초간본 등을 중시하며, 특히 작가의 생가는 물론 작가가 소장했던 다양한 물건들을 함께 전시함으로써 그들의 문학 세계와 삶을 연결하는 데에 관심을 둔다. 또한 시간적 흐름에 따라 공간을 배치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체험존을 통해 문학을 감각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문학관이라는 공간은 우리가 전공 서적으로만 접했던 문학과 문학 세계를 다르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세 문학인에 관한 철저한 사전 학습과 함께 문학관 방문이 이뤄졌을 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먼저 글로만 접했던 자료들의 실재, 즉 실물을 직접 볼 수 있기에 해당 자료에 관한 흥미와 이해가 높아지며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둘째, 해당 인물들과 근대 문학에 관한 폭넓은 지식이 뒷받침되고 있기에 문학관이 인물을 소개할 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지점을 이해할 수 있고, 비교적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지점을 찾아냄으로써 새로운 방향성을 덧붙일 수 있다. 셋째, 각 인물의 업적과 정신, 그리고 그 가치를 보다 뚜렷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국문학도로서 앞장서서 이를 계승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권영민 역, 『김환태가 남긴 문학 유산』, 문학사상사, 2004.
- 김옥동, 『비평의 변증법-김환태, 김동석, 김기림의 문학비평』, 2022.
- 김환태, 『김환태 평론 선집』, 지만지, 2015.
- 나민애, 『1930년대 조선적 이미지즘의 시대-정지용과 김기림의 경우』, 푸른사상, 2016.
- 류경동, 『현대시의 감각과 기억-정지용과 백석 시 연구』, 우물이있는집, 2018.
- 박태상, 『정지용의 삶과 문학』, 깊은샘, 2010.
- 이병기, 『가람 이병기 전집』,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장도준, 『김환태 비평 연구』, 태학사, 2014.
- 정지용, 『정지용 전집』, 민음사.

※정기학술조사 예시 주제안(에시일 뿐입니다.)

1. 구비문학과 역사기술의 관계성
2. 백제의 문학-문화-역사 연구
3. 청주 고인쇄 박물관의 전시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국어 역사 등
4. 청주 고인쇄 박물관과 가람 이병기의 업적을 엮어 국문학, 국어학, 문헌학 연구의 의의와 가치 확인
5. 가람 이병기, 정지용, 김환태를 엮어 근대 문학의 근대성 연구
6. 정지용, 김환태의 교류와 문학 세계 확인

이처럼 답사지들을 다양하게 엮어 주제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